

8 경희의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

경희의 학생으로, 동료로, 가족으로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누군가는 캠퍼스를 배움의 공간으로, 또 누군가는 일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서른 번이 넘는 봄을 학교에서 맞이하며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추억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기, 경희를 통해 꿈을 키우고, 인연을 찾고, 일터를 가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전 경희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국제캠퍼스 중앙의 새천년기념탑 위로 해가 쏘으면, 조용하던 행정실에도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하나 둘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자정보대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두 개 단과대학이 맞닿아 있는 이곳 행정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요청이 오갑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 수많은 일들은 이광봉 씨의 손을 거쳐 갑니다. 그는 두 단과대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실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전 개교기념일에 2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경희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색의 광장 곳곳에 새순이 돋던 1991년 봄, 이광봉 씨는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새내기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진지하게 언어를 탐구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또 같은 과의 학우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열정적인 학생회장이기도 했지요.

학문에 뜻을 품었던 그는 우리학교의 대학원에도 진학했습니다. 조교로 일하던 중 평생 함께할 인연도



이광봉 씨는 우리학교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으로 노천극장을 꼽았다. (사진=한진석 기자)

찾았고요. 그의 부인 역시 우리학교 동문으로, 그녀의 지지는 그가 모교를 떠나지 않도록 돕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가 캠퍼스에서의 추억들을 한마디 말로 정리할 수 없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에게 경희는 친구이자 가족이고, 학교이자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생계의 의미를 넘어서, 친구나 집처럼 소중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라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물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원에서 한창 그만의 학문을 쌓아가던 때,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장 가계에 힘을 보태야 했던 그는 학업의 뜻을 마음 한 구석에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다시 기회를 찾은 곳은 캠퍼스였습니다. 이 씨는 처음 교직원으로 학교에 다시 들어설 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내어준 학교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후배들은 배움의 꿈을 접지 않도록 힘껏 돕자는 결심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전 생애에 걸친 기부를 학교와 약속했고, 지금도 후배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부서부터, 비서실, 또 연구팀에 이르기까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가장 보람찼던 기억 중 하나로 학생들과 함께했던 봉사활동을 꼽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 만든 작은 프로젝트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던 그는 이내 봉사단의 일원으로 참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봉사로서 시작한 이 활동은 곧 라오스의 한 마을을 바꾸는 10년짜리 계획으로 자라났습니다. 근속상보다 그가 더 자랑스레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과 흘린 땀이고, 창고 아래 모여 쪽잠을 자던 기억입니다. 후배들의

상상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그의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학생들이, 또 인사이동 시기에는 정들었던 동료들이 각자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직하게 한 자리를 지켜오며 만남과 이별에 익숙해질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는 매번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캠퍼스에서 제가 누릴 수 있었던 즐거움과, 인연들을 경희 가족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다 이룬 배움의 꿈까지도 말이에요.” 누군가는 행정실장이라는 그의 직함을 딱딱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씨의 책상 위에는 인연, 배움, 봉사, 도전의 추억들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가 우리학교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은 국제캠퍼스의 노천극장입니다. 행정실에서 바로 보이는 그 풍경에는 그가 학생 때부터 풀어놓은 생각들이 여전히 거닐고 있습니다. 자신의 새내기 시절 모습처럼 진지한 사색을 즐기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애뜻한 마음이 솟는다는 이 씨. 그는 학생들의 깊은 생각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배움을 얻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늘 새롭고, 배울 점이 많아요. 얼굴을 맞대기 힘든 요즘이지만, 언제든 학교에서 그 가능성을 풀어 놓으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학생들의 활기로 곧 밝아올 경희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는 불 꺼진 연구실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을 것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개인안심번호는
NAVER, kakao, PASS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QR체크인

남은시간 15초

개인안심번호
12가34나

이용하려는 시설의
수기명부에 기재하세요.

2021학년도 후기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
- 유엔평화학 관련 유수의 석학으로 이루어진 교수진 (Thomas Weiss, Ram Cnaan, 오준 등)
- 다양한 장학제도(전액, 성적, 기숙장학 제공)
- 서울캠퍼스와 광릉캠퍼스에서 수업 진행

1. 모집과정	석사과정
2. 모집전공	국제평화, 유엔평화학, 평화안보정책
3. 전형방법	면접
4. 원서접수기간	5월 24일 ~ 7월 1일(기간 내 수시모집)
5. 온라인 원서접수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6. 문의처	• 이메일 : gip@khu.ac.kr • 문의전화 : 031-570-7012~9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